

보도시점 : 2026. 8. 27.(목) 11:00 이후(8.28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8. 27.(목)

“KTX·SRT 고속철도 통합, 안전하고 빈틈없이 준비한다”

【관련 국정과제】 57.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

- 통합운행 취약요인 사전 분석… 기관사 교육부터 현장 안전관리까지 빈틈없이 준비
- 합동 안전점검·‘통합개통 점검 TF’ 통해 안전·서비스 등 통합운영 전반 관리
- 28일 서울역 현장 추가 점검… 통합운행 준비상황 마지막까지 확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한국철도공사(이하 “코레일”)·에스알과 함께 9월 1일 KTX·SRT 통합열차 운행 개시를 앞두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국토부와 두 기관은 노사정 협의체, 현장 직원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, 통합으로 새롭게 운행하는 구간과 변경되는 작업 여건 등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왔다.

① 현장 의견부터 반영… 통합운행 취약요인 ‘핀포인트’ 분석

□ KTX와 SRT 열차가 노선 구분없이 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구간 및 차량 운행*이 많아져 대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이에 대해 기관사가 신규 구간 인증 및 차량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, KTX-1 등 새로운 차량은 운행 경험이 풍부한 KTX 기관사가 침승해 교육하는 숙달훈련을 실시하는 등 통합운행에 철저히 대비하였다.

* KTX 기관사 : 울현터널 등 기존 SRT만 운행한 구간 운행

SRT 기관사 : 서울역-금천구청역 등 기존 KTX 운행 구간 및 KTX-1 차량 운행

- 또한 열차 운행 횟수와 중련운행 증가에 따른 연결·분리 작업 증가와 열차 간 간격 단축 등에 대비하여 작업 반복 숙달, 인력 추가 배치, 관제-현장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.

② 고속철도 통합 대비 정부·전문 기관 합동점검 및 통합개통 점검 TF 가동

□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준비 과정에서 선제적인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레일·에스알·교통안전공단·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꾸준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탈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도 진행하였다.

○ 먼저, 시범 교차운행('25.2)과 시범 중련운행('25.5)에 앞서 차량·신호·통신설비 간 호환성과 차량의 정상 제어·운행 가능 여부, 승무원의 승차 차량 취급요령 숙지 여부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다.

○ 국토부는 8월말까지 코레일-에스알 통합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*을 완료하고, 9월 1일 통합운행 이후에도 일부 구간에 기관사 복수 배치, 기관사 교육실태 점검 등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*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, 시설, 교육훈련 등 철도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국토부 승인 필요

□ 합동점검 결과 조치와 개통 이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국토부·코레일·에스알이 참여하는 '고속철도 통합개통 점검 TF'도 운영한다.

○ TF는 국토부 철도국장과 코레일, 에스알 담당 본부장 등으로 구성한다. 철도 안전 점검과 함께 중련열차 연결·분리 인력 강화 및 차량 청소 인력 운영, 시설 혼잡 등 통합운영 현장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, 부정예매 방지, 명절예매, 편의시설·고객 안내체계 등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도 점검하고 개선한다.

○ TF는 개통 이후 초기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③ 28일부터 추가 현장 점검 실시

- 8월 28일 국토부(철도국장 등)는 코레일·에스알 안전 실무책임자와 서울역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, KTX-1 실무수습 교육을 비롯해 역사 안내체계, 서울역 로컬관제센터의 관제·비상대응체계 등을 직접 확인한다.
- 이후에도 고속철도 통합열차 운행 초기에는 국토부 직원이 직접 열차도 탑승하여 운행과 역사 이용을 점검하고, 미비점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 통합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.
- 김태병 철도국장은 “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”이라며, “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안전과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, 통합운행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정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“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”라며, “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해진 고속철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“다시 처음 개통한다는 마음으로 안전과 운행 준비 사항을 챙기고, SRT 10년의 서비스 노하우와 코레일의 전국적 철도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·보완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책임자	팀 장	정덕기 (044-201-5281)
		담당자	사무관	황선호 (044-201-5282)
		담당자	주무관	김효석 (044-201-5284)
	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익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혁 (044-201-4602)
담당 부서	한국철도공사 통합전략실TF	책임자	실 장	홍영호 (042-615-6340)
		담당자	과 장	강지연 (042-615-6346)
	에스알 고속철도통합관리단TF	책임자	단 장	권요섭 (02-6484-4810)
		담당자	부 장	염경하 (02-6484-4820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